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스님박사들 · 불교대 출신들

인간실존에 대한 해답 추구

스님박사 29명 · 해외 취득 59% ... 경전 · 교리연구 두드러져

불교정신을 현대사회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는 박사스님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1969년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 29명의 학위논문은 조사 분석한 결과 크게 세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종교 및 사상은 시대성과 사회성을 지닌다. 따라서 최근에 이룰수록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의 수가 급격히 증가(1969~1979:3편, 1980~1989:15편, 1990~1994:11편)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불교학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둘째,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역대고승의 저서 및 사상연구 8편, 불교사 3편, 종교간의 비교연구 2편, 경전 및 교리연구 10편, 인문학과 연관된 불교연구 4편, 사회과학 내지 물리학 논문이 2편이다. 이는 불교교리 자체의 연구 뿐만 아니라 일반학문과 접목한 불교의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순수불교와 일반학문이 연결된 불교는 일견 서로 다른 흐름인 것 같으나 인간의 실존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찾으려는 탐구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다양하게 직면하게 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란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학위 취득률이 41%에 그쳐 해외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님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교연구의 성과가 한국불교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의 연구는 문화의 발전을 촉진 시켰다. 동시에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이면에는 스님들의 치열한 교학연구가 있었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중흥을 준비하는 지금, 선조들의 전통과 승단의 규모에 비하면 불교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스님들의 숫자는 태부족임이 분명하다. 불교계의 개혁이나 중흥을 위해 보다 많은 스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교계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대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 어디서 뭘 하나

“상당수 교계 밖에서 활동”

포교사 · 교계언론등에 진출 ... 증가추세 보여

중립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외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불교계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 특별취재팀이 94년 12월 현재까지의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을 동국대 불교대학 중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불문주석과 및 졸업생들의 조연을 참고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의하면 동국대 불교대학 출신들의 교계 활동은 종단과 사회적 변화와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돼 주목되고 있다. 또 해가 갈수록 불교계 내에서 활동하는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교계내의 인력 수급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증가폭은 교계내에 형성되는 불교관련 업계의 증가폭과 긴밀한 관련을 보여 지조하다는 분석이 더 큰 타당성을 갖고 있어 불교학 전문인의 양성과 그들의 수용 사이에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대학 출신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교육계다. 그러나 이 분야의 증가폭은 70~80년대를 지나면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교육부 차원의 교원채용기준의 변화와 학교 수에 대한 교직 희망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학교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교직희망자를 받아들일 만큼 교법사의 수적 증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진출 현황이 80년대와 80년대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불교대학 출신의 교직 희망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계 진출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법사로 진출하는 졸업생의 수적 증가는 80년대 이후 그 폭을 현격히 높이고 있다. 이는 교계내에 다양한 사찰 교양대학이 생겨난 것과 군법사의 수적 증가, 도심 포교단의 증가와 그에 따른 상임 포교인력의 필요성 대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로 진출한 졸업생이 70년대의 25명에서 80년대에는 41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90년대 전반기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란게 동국대학의 분석이다. 동국대에 불교대학원이 개설되고 조계종 포교사 교육과 각 지역 포교사 양성기관의 확대 등 교계 내의 변화와 관련 동국대에서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문호가 넓게 열렸다는 것이

다. 언론, 출판계로의 진출 분포도 약간씩 증가되고 있지만 큰 변화의 폭은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교계내 신문사가 줄어 문예 열었고 불교방송국의 개국, 불교 텔레비전의 개국등 이 분야 진출의 폭이 넓어진 것을 감안하면 조사된 연내 이후에도 상당수의 진출현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불교운동분야의 진출은 불교계 내에 형성된 각종 실천사업 그룹의 증가와 함께 계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분야 역시 70년대와 80년대에 상당한 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80년대에 형성된 각종 불교운동 단체들이 당시의 사회현상과 어우러지며 불교대학 출신들의 주목을 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조사의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언론, 출판, 법사, 불교운동 등 교계 내부로 진출한 졸업생 보다는 교계 밖으로 진출활동상향이 체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10년 단위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승가 구성원이 제외됐지만 재가 졸업생들 대부분이 교계 밖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교계내에 입지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인 셈이다. 이같은 진출의 문이 좁다는 요인 외에도 승가와 재가 사이에 놓인 괴리감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교계 내에서 재가자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부대중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많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교단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선 밖에는 언제나 승가 위주형 활동영역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로 진출한 경우와 교계로 뛰어든 경우를 놓고 볼 때 생계의 관련된 수입의 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이 불교 전공인의 탈불교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불교계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재의 부족을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교학을 전공한 인력마저 교계 진출을 망설이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불교계 전체의 과제로 남아 있다.

불교 인재의 양성과 적절한 수용, 이는 종단의 안정과 다양한 사업체의 조성 등 제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결론이다. (특별취재팀)

박사스님들의 학위 논문

-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 29명의 개인 프로필을 빌려 학위취득학과 논문 제목 취득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경보스님(일봉선교종 종정)=미국 덴틀대학교 종교학과 철학박사, '조 단장을 통해 접근한 한국 선불교의 연구'(1969)
- ▶채인환스님(동국대 교수, 선학과)=일본 동경대학교 문학박사, '신라불교 계통 사상사 연구'(1975)
- ▶이지관스님(해인사 주지, 전 동대 총장)=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남북진 유부율장 비교 연구'(1976)
- ▶김철인스님(숙명여대 강사, 전 동국대 승가학과 교수)=전국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불교연기사상에 관한 연구-아함경을 중심으로'(1981)
- ▶윤호진스님(동국대 교수, 불교학)=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철학과 종교학박사, '나선비구경에 있어서의 무아의 윤리문제'(1981)
- ▶최지현스님=미국 캘리포니아 골든 주립대학교 철학박사, '밀교승(Mantrayana)의 철학적 체계'(1984)
- ▶한보광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일본 경도불교대학 문학박사, '연수문화의 고려 수확 연구'(1985)
- ▶이법신스님(동국대 교수, 선학과)=대만 문화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보조지들의 선사상 연구'(1985)
- ▶김혜법스님(동국대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북한 형법에 관한 연구'(1985)
- ▶소진홍스님(경흥사)=대만 문화대학 문학박사, '중국 격의불교 연구'(1986)
- ▶최현라스님(동국대 교수, 선학과)=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선의 실천철학 연구'(1986)
- ▶신법인스님(각원사)=일본대동문대학교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대한 연구'(1987)
- ▶서법경스님(동국대 교수, 인도철학과)=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철학박사, '신아함에 있어서 마라의 연구'(1987)
- ▶나지명스님(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미국 템플대 종교학과 철학박사, '선대의 불이사상 연구'(1988)
- ▶표도철스님(한국티베트불교회장)=미국 트리니티대학교 종교학박사,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분석'(1988)
- ▶김혜원스님(동대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북종선수의 선사상 연구'(1988)
- ▶전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대정대학 진언밀교학과 불교학박사, '고려밀교와 원대 라마교와의 관계 연구'(1989)
- ▶정성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고마자와대학 문학박사, '초기선종의 성립사 연구'(1989)
- ▶전해주소님(동국대 교수, 불교학과)=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신라 의상의 화엄교학 연구'(1990)
- ▶김진열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능가경의 선사상'(1992)
- ▶진분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일본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박사, '화엄 관법 연구'(1992)
- ▶김요주소님(미타사 금보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유식학의 삼식구조설에서 본 아동성적 심리의 논리적 고찰'(1992)
- ▶임승산스님(중앙승가대 학장, 불교복지학)=일본 경도불교대학, '한국재난구제사'(1992)
- ▶김정아스님(한미음선원)=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물리학박사, '우주초기에 붕괴되는 입자들에 대한 우주론적 제약'(1992)
- ▶장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일본 경도 불교대학 '법정교학의 사상사적 연구'(1993)
- ▶권대원스님(동국대 교수, 불교아동학)=숙명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불전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탐색'(1993)
- ▶서성우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1993)
- ▶이지명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한산의 시세계 연구-선문학적 입장에서'(1994)
- ▶박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박사, '일제의현의 선사상 연구'(1994)
- ▶김요주소님(미타사 금보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유식학의 삼식구조설에서 본 아동성적 심리의 논리적 고찰'(1992)
- ▶임승산스님(중앙승가대 학장, 불교복지학)=일본 경도불교대학, '한국재난구제사'(1992)
- ▶김정아스님(한미음선원)=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물리학박사, '우주초기에 붕괴되는 입자들에 대한 우주론적 제약'(1992)
- ▶장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일본 경도 불교대학 '법정교학의 사상사적 연구'(1993)
- ▶권대원스님(동국대 교수, 불교아동학)=숙명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불전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탐색'(1993)
- ▶서성우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1993)
- ▶이지명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한산의 시세계 연구-선문학적 입장에서'(1994)
- ▶박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박사, '일제의현의 선사상 연구'(1994)
- ▶김요주소님(미타사 금보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유식학의 삼식구조설에서 본 아동성적 심리의 논리적 고찰'(1992)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 | | | |
|--|--|--|--|
| 종 정 尹 月 下
예경실장 朴 重 來 | 총무원 원장 宋 月 珠 | 중앙종회 의장 田 雪 靖 | 포교원 원장 金 正 樂 |
| 원로회의 의 장 金 慧 庵
부의장 金 僧 讚
부의장 金 圓 潭
사무처장 朴 惺 法 | 총무부장 金 梵 河
기획실장 羅 之 鳴
재무부장 朴 元 愚
문사부장 金 時 玄
사업부장 李 雪 松
호법부장 鄭 慧 昌
사서실장 朴 平 常 | 부의장 黃 日 面
부의장 李 青 和
사무처장 金 圓 學 | 포교부장 金 圓 慧
포교국장 金 聖 壽
연수국장 沈 和 庵 |
| 총무국장 姜 性 慧
감사국장 金 法 眞
문화국장 車 德 信
사업국장 梁 正 滿
조사국장 趙 弘 冠
상임감찰 千 月 佑
호법과장 金 曉 林 | 기획국장 朴 萬 成
재무국장 李 宗 三
사회국장 吳 法 光
호법국장 朴 正 念
사서차장 張 眞 悟
상임감찰 魏 雨 松
조사과장 朴 雲 光 | 교육원 원장 金 圓 山
교육부장 鄭 香 寂
불교연구소장 宋 德 雲
총무국장 徐 正 門 | |

